

부모와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이 자기주장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손 민 정¹⁾

좋은마음 신경정신과

김 광 응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 연구는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과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각각 2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학생들 500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t-test, 카이검증,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주장 행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소극성, 공격성, 주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이 분노표출 집단일 때 자기주장 행동 중 공격성과 주장성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을 살펴본 결과 여아가 분노를 억압하는 집단일 때 소극성과 주장성 점수가 높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집단일 때 공격성 점수가 높았다.

주요어 : 분노 표현방식, 자기주장 행동

1) 교신저자 : 손민정, 좋은마음 신경정신과 놀이치료사, E-mail : europe97@hanmail.net

2)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I. 서론

분노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장 빈번히 경험되는 기본적인 정서 가운데 하나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서가 작용하는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김용섭, 1984).

Novaco(1976)는 이러한 분노의 경험과 표현은 사회를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적절한 분노는 행동을 일으키는데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았으며 공개적인 분노의 표현은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분노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갈등을 외면화함으로써 고양된 불안감에 대한 자아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강한 통제감을 부여하고 극복행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분노의 경험과 표현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유발된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억제될 경우에는 다른 부정적 행동과 정서로 대치되기도 한다(Sharkin, 1988). 분노는 불안(Deffenbacher, 1990), 신경증(Spielberger, 1979)이나 과긴장(過緊張)(Crane, 1981)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고혈압(Crane, 1981; Harburger et al., 1973), 그리고 암(Greer & Morris, 1975)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한 분노는 대개 난폭한 말씨나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기 때문에 분노가 남발되거나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할 때에는 인간관계가 악화된다(김용섭, 1984).

모든 분노가 갈등이나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충동적인 공격성에는 분노가 관련된다는 연구가 있는 바와 같이 조절되지

않은 분노는 너무나 쉽게 파괴적인 공격성으로 전환되고 불필요한 공격을 초래한다(Taylor, 1988).

이처럼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정신건강과 인간관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노는 개인이 표현하는 일상적인 감정이기 때문에(고영인, 1993, 1994; 권혜진, 1991, 김계현, 1993) 분노를 느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가지고 한 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나가 중요한 것이다. 즉,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으로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서의 표현방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각 개인의 가정,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5세기 이상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동과 여자에게는 각각 상이한 역할과 행동기준을 설정하고 정서를 표현하지 않도록 가르쳐왔다(권혜진, 1991). 물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유교적인 전통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의 분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아동들에게 있어서 분노의 표현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분노의 적절한 표현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아동들은 자신이 환경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지각하며, 이들에게 있어서 분노는 좌절, 우울, 의존성과 특히 강한 연관성을 가져서 결국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되기 쉽다. 이러한 부적절한 분노의 표현방식은 결국 대인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개인 삶의 자율성과 자기 자신의 정서에 대한 조절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식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사회 행동과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분노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와 공격성 등이 다루어 졌다(고영인, 1994; 임태숙, 1992; 전성희, 1996; Deffenbacher, 1988; Dubow, Huesmann, & Eron, 1987; Eckhardt, Barbour, & Davison, 1998; Evans & Strageland, 1971; Feindler, Marriott, & Iwata, 1984; Tangney et al., 1996). 또한 분노를 공격 행동 및 비행의 주요 유발인자로 설명하면서 분노 혹은 공격성을 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김백영, 1997; 김용태, 1996; 남궁희승, 1997; 류소영, 1996; 박성혜, 1995; 박정화, 1995; Deffenbacher et al, 1990; Hazaleus & Deffenbacher, 1986; Novaco, 1975)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점차 분노를 독립된 주체로 다루면서 분노의 심리적 과정을 제시하는 연구(Berkowitz, 1983, 1989, 1990)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연구의 대상이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동의 분노 그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부모의 분노상황과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과의 관계(양순도, 2002)’라든지 ‘사회계층별 학령기 아동의 분노에 관한 연구(백미진, 2002)’ 등 분노를 독립적으로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분노에 대한 건전한 반응이란 상대방을 해치거나 사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분노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불균형 상태에서부터 다시

평안을 회복하고 분노상황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달성하게 하는 반응이다(Alschuler & Alschuler, 1984). 이러한 점에서 분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분노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바람직한 표현방식의 하나로서 제시할 만한 것은 분노의 자기주장적 표현이다. 분노에 대한 자기주장적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또 공격성이나 적대감의 표출 없이 정당한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분노에 관한 연구들은 분노 조절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앞서 적절한 분노 표현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인간의 성장발달이나 행동양식의 학습에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인 부모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분노 표현방식은 학습과 특정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게 된다고 학자들은 말한다(안근석, 1991; Cumming, Waxler, & Yarrow, 1984; Cumming, Iannotti, & Waxler, 1985). 아동들이 부모의 생활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 습관체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아동이 적절한 분노 표현방식을 습득하는데 부모의 역할 또한 중요하며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을 아동이 학습하여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노 표현방식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김용섭(1984)

은 나이가 어릴수록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은 더욱 직접적이며, 성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언어의 형태로 반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Stoner와 Spencer(1987)는 분노표현의 방식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이와는 달리 Deffenbacher와 Swaim(1999)은 분노표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물리적인 모욕을 가하는 등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분노 표현방식이 학습과 특정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는 안근석(1991)의 연구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로 본 김계현(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이 부모의 분노에 대한 반응을 학습한다고 보고,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과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를 통해서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절한 분노 표현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적절한 분노 표현방식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과 자기주장 행동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각각 2곳의 4, 5, 6학년생 500명과 그들의 부모 50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고학년이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 분노 표현방식을 학습했을 것으로 예상했고, 설문지가 자기보고 식으로 되어 있어 설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측정도구

부모의 분노표현 검사

본 연구에서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Spielberger 등(1988)의 분노 표현 척도(AX-Anger Expression Scale)를 바탕으로 전점구(1991)가 문화적,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여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노표현 척도는 분노조절, 분노억압, 분노표출로 그 하위척도가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분노 표현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의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각 하위척도별로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전혀 아니다’(0), ‘약간 그렇다’(1), ‘어느 정도 그렇다’(2), ‘아주 그렇다’(3)의 3단계로 나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별 점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의 하위척도를 그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아버지

의 경우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 순으로 .71, .81, .77 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 순으로 .73, .74, .73이었다.

아동의 분노표현 검사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Spielberger 등(1988)의 분노 표현 척도(AX-Anger Expression Scale)를 바탕으로 전점구(1991)가 문화적,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여 번안한 척도를 김백영(1997)이 초등학교의 수준에 맞게 개정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분노표현을 알아보는 데 적합한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의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노표현검사는 각 하위척도별로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3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식 척도이다. 문항범주는 '전혀 아니다'(0), '약간 그렇다'(1), '어느 정도 그렇다'(2), '아주 그렇다'(3)의 3단계로 나뉘어 있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각각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이 각각 0~2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별 점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의 하위척도를 그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의 순으로 .74, .81, .73 이었다.

자기주장 행동 척도

아동의 대인 관계 상황시의 문제 해결 양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Michelson과 Wood(1982)가 제작한 아동의 주장 척도(Children's Assertive

Behavior Scale; CABS)를 이지원(1999)이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을 서술한 총 27개의 문항에 대해 수동적/철회적(passive/withdrawal), 공격적/적대적(aggressive/hostile), 사교적/주장적(sociable/assertive)인 내용이 포함된 5가지의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 중 소극적인 행동이란, 자신의 느낌, 생각, 신념을 솔직하게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여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쉽사리 그를 무시할 수 있게 하는 변명이나 수줍음, 그리고 자기 위축과 같은 태도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공격적인 행동이란, 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면서까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특성을 띠는 행동을 의미한다. 주장적인 행동이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느낌, 생각, 신념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직접 나타내는 행동을 말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리 설정된 점수계산 방식에 따라 -2점은 매우 소극적인 행동, -1점은 약간 소극적인 행동, 0점은 주장적인 행동, 그리고 +1점은 약간 공격적인 행동, +2점은 매우 공격적인 행동으로 분류된다.

27개의 문항에서 소극적, 공격적으로 반응한 문항의 절대 값을 각각 합하여 소극적 반응양식 점수와 공격적 반응양식 점수를 구한다. 각 반응양식에서의 점수분포는 0점-54점이 된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Wood와 그의 동료들(1978)의 연구에서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고, Michelson과 동료들(1979)이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역시 4주 간격으로 실시하여 .66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s α .77의 신뢰도를 얻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3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9일간 실시되었다.

아동에 대한 설문지는 담임이 적절한 시간에 실시하여 바로 회수하였고, 부모에 대한 설문지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아동의 부모님에게 발송하여 담임이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의 1)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분노 표현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고 2)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에서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3에서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문제 4에서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과 자기주장 행동의 남녀간 차이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의 남녀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따라 분노 표현방식의 빈도를 산출하고,

표 1.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의 남녀간 차이

성 별	분노 표현방식			N(%)
	분노 억압	분노 표출	분노 조절	
남아	48(10.02)	72(15.03)	103(21.05)	223(45.46)
여아	61(12.73)	93(19.42)	102(21.29)	256(53.44)
전체 (%)	109(22.76)	165(34.45)	205(42.80)	479(100.00)

$\chi^2=1.97$ ($p>.05$)

표 2. 아동의 자기주장 행동의 남녀간 차이

	남 아	여 아	t
	M(SD)	M(SD)	
소극성	12.64(5.13)	11.68(4.76)	2.16*
공격성	8.27(4.41)	7.42(4.50)	2.13*
주장성	20.90(6.01)	19.10(5.99)	3.35***

주. * $p < .05$, *** $p < .001$

카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분노 표현방식의 카이 검증의 결과이며, 분노 표현방식은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주장 행동의 남녀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주장 행동의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의 t-test 결과로서 성별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의 소극성, 공격성, 주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아는 여아보다 자기주장 행동에

서 소극성, 공격성, 주장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과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의 빈도를 산출하고 카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

표 3은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의 카이검증의 결과이며,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과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

표 4는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의 카이검증의 결과이며, 어머니와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은 유의한 차

표 3.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의 차이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			전체 (%)
	분노 억압	분노 표출	분노 조절	
분노 억압	12(5.58)	9(4.19)	22(10.23)	43(20.00)
분노 표출	6(2.79)	13(6.05)	18(8.37)	37(17.21)
분노 조절	30(13.95)	44(20.47)	61(28.37)	135(62.79)
전체 (%)	48(22.33)	66(30.70)	101(46.98)	215(100.00)

$\chi^2=3.23$ ($p > .05$)

표 4.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의 차이

N(%)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			전체 (%)
	분노 억압	분노 표출	분노 조절	
분노 억압	13(5.86)	15(6.76)	31(13.96)	59(26.58)
분노 표출	5(2.25)	9(4.05)	7(3.15)	21(9.46)
분노 조절	30(13.51)	47(21.17)	65(29.28)	142(63.96)
전체 (%)	48(21.62)	71(31.98)	103(46.40)	222(100.00)

 $\chi^2=2.96$ ($p>.05$)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과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의 빈도를 산출하고 카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

표 5는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여

아의 분노 표현방식의 카이검증의 결과이며, 아버지와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

표 6은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의 카이검증의 결과이며,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과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억압하는 분노 표현방식을 가질 때, 여아도 억압하는 분노 표현방식을 가지며, 어머니가 표출하는 분노 표현방식을 가질 때, 여아도 표출하는 분노 표현방식을 가짐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조절하는 분노 표현방

표 5.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의 빈도와 χ^2

N(%)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			전체
	분노 억압	분노 표출	분노 조절	
분노 억압	12(4.74)	15(5.93)	17(6.72)	44(17.39)
분노 표출	8(3.16)	25(9.88)	21(8.30)	54(21.34)
분노 조절	39(15.42)	53(20.95)	63(24.90)	155(61.26)
전체	59(23.32)	93(36.76)	101(39.92)	253(100.00)

 $\chi^2=3.95$ ($p>.05$)

표 6.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의 빈도와 χ^2

N(%)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			
	분노 억압	분노 표출	분노 조절	전체
분노 억압	13(5.14)	14(5.53)	24(9.49)	51(20.16)
분노 표출	5(1.97)	13(5.15)	5(1.97)	23(9.09)
분노 조절	42(16.60)	64(25.30)	73(28.85)	179(70.75)
전체	59(23.64)	93(35.90)	101(40.31)	253(100.00)

$\chi^2=10.38$ *(p<.05)

식을 가질 때, 여아도 조절하는 분노 표현방식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 중 공격성과 주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이 분노표출집단 일 때 공격성과 주장성의 점수가 높았다.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 중 소극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아의 분노 표현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

표 7.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

종속 변인	집단	N	M(SD)	F	Scheffe'
소극성	분노억압	48	13.10(5.84)	0.74	
	분노표출	72	11.98(4.59)		
	분노조절	103	12.54(5.00)		
공격성	분노억압	48	8.02(4.72)	12.60***	b
	분노표출	72	10.20(4.47)		a
	분노조절	103	7.00(3.77)		b
주장성	분노억압	48	21.13(6.26)	4.46*	ab
	분노표출	72	22.17(6.06)		a
	분노조절	103	19.50(5.67)		b

주. *p<.05, **p<.01, ***p<.001

표 8.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

종속 변인	집단	N	M(SD)	F	Scheffe ¹
소극성	분노억압	61	13.87(5.17)	9.23***	a
	분노표출	93	11.03(4.04)		b
	분노조절	102	10.96(4.64)		b
공격성	분노억압	61	7.28(3.79)	11.68***	ab
	분노표출	93	9.00(4.71)		a
	분노조절	102	6.01(4.21)		b
주장성	분노억압	61	21.15(5.61)	12.23***	a
	분노표출	93	20.03(5.66)		a
	분노조절	102	16.97(5.83)		b

주. * $p < .05$, ** $p < .01$, *** $p < .001$

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 중 소극성, 공격성, 주장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아가 분노를 억제하는 집단일 때 소극성과 주장성 점수가 높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집단일 때 공격성 점수가 높았다.

IV. 논의 및 제언

논의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을 아동이 학습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을 아동이 학습한다는 입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분노 표현방식을 비교해보고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

라 자기주장 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분노 표현방식과 자기주장 행동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분노 표현방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노 표현방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Stoner와 Spencer (1987)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남아가 자기주장 행동 중 소극성, 공격성, 주장성에서 여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학년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더 주장적이며 이러한 차이는 성역할 규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Hedrick과 Chance(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학령기 남아가 여아보다 더 주장적이며 공격적이고 덜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한 Scanlon과 Ollendick (198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과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고, 세력이 있고, 호감이 갈수록 그리고 자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모방할 것이며, 부모는 이러한 준거들에 부합되며 주 모델이 된다는 Kassinoe와 Suchodolsky(199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셋째,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과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는 아동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고, 세력이 있고, 호감이 갈수록 그리고 자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모방할 것이며, 부모는 이러한 준거들에 부합되며 주 모델이 된다는 Kassinoe 와 Suchodolsky(1995)의 연구와 부모가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과 가족간에 용납될만한 화풀이 대상을 보면서 자기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배운다는 Cummings 등(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가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동이 자기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배운다는 Kassinoe와 Eckhardt (1995)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넷째,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집단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남아의 분노 표현방식

이 분노 표출집단일 때 남아의 자기주장 행동은 공격성과 주장성이 높았다. 이는 분노표출하는 집단의 남아는 타인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격적이거나 주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또한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 집단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여아가 분노를 억제하는 집단일수록 소극성과 주장성의 점수가 높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집단일수록 공격성의 점수가 높았다. 여아의 경우 분노를 억압하는 집단의 여아는 타인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취함을 의미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집단은 타인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격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취함을 의미한다.

여아의 분노 억압집단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게 주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가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나타내지 않고 되도록 긍정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질문지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남아와 여아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분노를 외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일수록 주장성이 높다고 보고한 Williams와 Jenkins (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분노를 억압하는 사람일수록 주장성이 낮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자기주장 행동의 결과는 고영인(1994)이 분노에 대한 바람직한 표현양식의 하나로 자기주장적 표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과 이론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며 적절한 분노 표현을 습득하기 위한 여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첫째, 분노 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만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선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만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는 아동의 분노 표현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라든가 개인의 특성 등을 포함시켜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 일부지역의 4, 5, 6학년 아동과 그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연령의 더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노표현검사와 자기주장행동 검사는 자기 보고식(self-reports) 척도이다. Quigley와 Tedeschi(1996)에 의하면 자기보고식 측정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편견에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분노 정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나타내지 않고 되도록 긍정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질문지에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들의 응답이 실제 분노 감정에 대해 반영한 것인지, 반응자의 신념이나 자기 정당화를 반영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의 분노 표현 검사의 경우 그들이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방어를 해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분노 표현방식을 직접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분노 표현 방식과도 비교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이 여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분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부모의 분노 표현이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적절한 분노 표현방식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영인 (1993). 분노의 심리적 과정 모형.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28, 134-164.
- 고영인 (1994). 대학생의 분노 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혜진 (1991). 청소년기의 여성의 분노표현 및 해결방법의 질적 연구. 중앙의대지, 53, 287-299.
- 김계현 (1993). 분노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연구, 11, 49-64.
- 김백영 (1997). 분노통제 프로그램이 부적응아동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섭 (1984). 분노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 논문집, 12, 71-90.
- 김용태 (1996). 분노조절 프로그램. 한국대학상담학회 하계학술대회 워크북, 48-61.
- 남궁희승 (1997). 분노 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초등학교 이동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소영 (1996).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대처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혜 (1995). 분노유발상황과 분노수준별, 청

- 소년 대처전략과 효과성 평가.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화 (1995).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능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미진 (2002). 사회계층별 학령기 아동의 분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근석 (편저). (1991). 심리학 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 양순도 (2002). 부모의 분노상황과 자녀가 사용하는 분노감소전략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원 (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 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태숙 (1992). 분노 통제 훈련이 비행청소년의 분노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구 (1991). 분노척도 개발 연구. 95년 대구·경북 심리학회 학습발표 논문초록, 19-32.
- 전성희 (1996). 여고생의 분노수준 및 분노표현 유형에 따른 우울, 불안, 인기도의 차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rkowitz, L. (1983). Aversively stimulated aggression: some parallels and differences in research with animals and human. *American Psychologist*, 38, 1135-1144.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503.
- Cummings, E. M., Waxler, C. Z. & Yarrow, M. R. (1984). Influence of conflict between adults on the emotions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95-507.
- Cummings, E. M., Iannotti, R. J. & Waxler, C. Z. (1985).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reaction to anger in the h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63-74.
- Crane, R. (1981). *The role of anger, hostility and aggression in essential hypertens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Deffenbacher, J. L. (1988). Cognitive-relaxation and skill treatment anger: a year la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34-236.
- Deffenbacher, J. L., (1990). A combination of cognitive, relaxation, and behavior coping skills in reduction of general anger.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July, 31, 351-358.
- Deffenbacher, J. L. & Swaim, R. C. (1999). Anger expression in Mexican American and White Non-Hispanic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61-69.
- Dubow, E. F., Huesmann, L. R. & Eron, L. (1987). Mitigating aggression and promoting prosocial behavior in aggression elementary school-boy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5, 527-531.
- Eckhardt, C. I., Barbour, K. A. & Davison, G. C. (1998). Articulated thoughts of maritally violent and nonviolent men during anger arous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259-269.

- Evans, D. R. & Strageland, M. (1971). Development of the reaction inventory to measure ang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71-176.
- Freindler, E. L., Marriott, S. A., & Iwata, M. (1984). Group anger control training for junior high school delinqu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 299-311.
- Greer, S., & Morris, T. (1975). Psychological attributes of woman who develop breast cancer: A controlled stud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 147-153.
- Harbuger, E., Erfurt, J. C., Hauensteing, L. S., Chape, C. & Schull, W. J. (1973). Socio-ecological stress, suppressed hostility, skin color, and black-white male blood pressure: *Psychosomatic Medicine*, 35, 276-296.
- Hazaleus, S. L. & Deffenbacher, J. L. (1986). Relaxation and cognitive treatments of ang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222-226.
- Kassinove, H. & Eckhardt, C. I. (1995). An anger model and a look to the future, Kassinove, H.(Ed). *Anger disorder: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Taylor & Francis.
- Kassinove, H. & Sukhodolsky, D. G. (1995). Anger disorder: basic science and practice issues, Kassinove, H.(Ed). *Anger disorder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Taylor & Francis.
- Novaco, R. W. (1975). *Anger control: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experiment*, Lexington, Ma: Health.
- Novaco, R. W. (1976). The Functions and Regulation of Arousal of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3, 1124-1127.
- Quigley, B. M. & Tedeschi, J. T. (1996). Mediating effects of blame attribution on feeling of ang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280-1288.
- Scanlon, E. M., & Ollendick, T. H. (1986). Children's assertive behavi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ree self-report measure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7, 9-21.
- Sharkin, B. S. (1988).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April, 66, 361-365.
- Spielberger, C. D. (1979). Preliminary manual for the State-Trait Personality Inventory(STPI): Test Form and Psychometric data Tempa, FL: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empa.
- Stoner, S. B., & Spencer, B. (1987). Age and gender differencies with the Anger Expression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 487-483
- Taylor, E. (1988). Anger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2, 147-155.
- Tangney, J. P., Wagner, P. E. Hill-Barlow, D., Marschall, D. E. & Gramzow, R.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97-809.
- Williams, D. A., & Jenkins, J. D. (1986). *Anger, Asertiveness and Type-A Behavior Patter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Parent and Children's Anger Expression Modes and Assertive behavior

Min-Jeong Son

Goodmind Neuropsychiatry Clinic

Kwang-Woong Kim

Dep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nger expression modes and their children's anger expression mode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nger expression modes and assertive behavior of children.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500 Children in the 4th, 5th and 6th grades of three elementary school and their par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obtained by SAS statistical program. And Cronbach's α were computed to check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ing instrument. And χ^2 -test, t-test and F-test to get the conclusion from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ed.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hildren's anger expression mode and their gender.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ssertive behavior and their gender.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rent's anger expression modes and their son.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rent's anger expression modes and their daughter. Fourth, according to boy's anger expression modes, anger-out group obtain higher scores aggression and assertion in assertive behavior. And according to girl's anger expression modes, anger-out group obtain higher scores of aggression and anger-in group obtain higher scores of passivity and assertion in assertive behavior. In conclusion, mother's anger expression modes and daughter's anger expression modes have closing relationship. And boy's anger-out group obtain higher scores aggression and assertion in assertive behavior. And girl's anger-out group obtain higher scores aggression and anger-in group obtain higher scores passivity and assertion in assertive behavior.

Keywords : anger expression modes, assertive behavior